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뉴욕타임스 1960년 3월 29일자에 전면 광고가 하나 실렸다. 미국 남부에서 인권 운동을 하다 위증죄로 피소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기 위한 것이었다.

광고 문안 가운데는 당시의 남부 흑인 인권운동 탄압사태가 적시되어 있었다. 알라바마 주립대학 학생들이 흑인 인권운동 지지 데모를 하는 걸 막기 위해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의 경찰당국이 학교 식당 문을 잠그고 학생들을 굶겼다든가, 킹 목사가 7회나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있다는 내용 등이 요지였다.

광고가 나가자 몽고메리시 시의원 겸 경찰 책임자인 샐리번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대학 식당 문을 닫은 적이 없고, 킹 목사가 체포된 회수도 일곱 번이 아니라 네 번이라고 주장했다.

샐리번은 그 광고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문사와 광고 의뢰인 4명을 상대로 5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몽고메리 순회재판소는 뉴

욕타임스의 불법성을 인정해 50만 달러를 샐리번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알라바마주 최고재판소도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이 사건은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심리 끝에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뉴욕

언론사 세무조사 몇몇한가

타임스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재판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언론이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유로운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공직자의 공무 수행에 관한 자유로운 공개토론은 미국 정치행태의 기본이고, 현실적인 악의(actual malice)가 없는 언론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문의 판결문을 남겼다.

이 판결을 내린 뒤 언론의 공격을 받은 공직자가 비판자인 언론의 현실적인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립되었고, 이로

써 표현의 자유는 한 겹 더 두터운 나이트를 두르게 되었다.

언론사 자유의 지평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지성사 발전에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까지 평가 받는 것이 바로 이 현실적인 악의의 원칙이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원칙이야말로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시정에서는 동서를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상식으로 통하던 규범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덮어두고 만다. 그런 결

언론사 세무조사 몇몇한가

코치코치 캐고 따지다간 오히려 협랑한 사람으로 몰린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접할 때마다 현실적인 악의의 원칙을 떠올릴 때가 많다. 이번 세무당국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그렇다.

사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도 엄연한 기업이고 기업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 이상으로 좋은 수단도 없다.

그러나 이번에 세무당국이 조사대상

을 몇 개 사로 한정하면서 거기에 굳이 조선일보를 포함시킨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선일보는 다 아는 바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조사를 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빈축을 샀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조사가 지나치게 엄격했고 처벌도 가혹했다 하여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치하에서 이 신문사는 또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부에서는 악의가 없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KBS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다. 논점은 KBS가 들어 있는냐의 여부가 아니다. 세무당국의 결정에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쟁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가 정부를 비판하는 걸 보며 악의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믿을 사람은 몇이나 되며, 정부가 조선일보를 세무조사한다는 데 거기에 악의가 개재하지 않았다고 믿을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악의가 악의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공론형성 과정만 심각하게 뒤를 밀 것이다. 참 불행한 일이다.

<고려대 신방과 교수·다산연구소 제6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지원대책 서둘러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들의 삶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간 갈등과 자녀 문제, 가정폭력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제결혼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 국제결혼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3천59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결혼한 전남지역 농촌총각 1천88명 가운데 39.3%인 428명이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들이 뿌리를 내리는 걸로 쉽지 않다. 한국 사회 특유의 순혈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인종적 편견 등으로 가족 구성원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낯선 한국어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언어 소통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소속도 기재만큼 높지 않다. 전남도

가 도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1천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월 평균소득이 132만2천원에 그쳤다. 최저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44 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외국인 여성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급속히 개선될 수 없다. 취업현황 등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횡포도 여전하다. 외국인 여성들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들도 엄연한 우리 국민이다. 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도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효숙 인준'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강일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인준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현재 소장직의 국회인준이 정쟁으로 또다시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헌법기관이 정쟁으로 인해 두 달이 넘도록 표류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인지 회의감마저 든다. 이유가 어쨌든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전효숙 문제'는 그동안 관행으로 돼 온 온 절충상의 하자 때문에 빚어졌다. 그 후 '절충적 문제'는 해소됐다. 그렇다면,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전 후보 인준안을 처리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막무가내식으로 표결처리마저 막겠다는 것은 '오기 정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리력으로 임명동의의 절차를 저지한다면 그 역시 헌법을 어기는 일로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전 후보자의 국회인준을 바라는 지역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절충적 문제'가 해소되면 표결에 참석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민주당 역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인준에 참여하겠다'는 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표결에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이다.

정쟁으로 인한 헌법기관의 공백상태를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헌법기관을 파행으로 몰아갈 수만은 없지 않은가.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인준안을 처리해 현재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無等鼓

타이거 우즈는 모두가 공인하는 '골프 황제'다. 그 위에 아무도 없음을 이르는 최고의 찬사인데 그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제왕다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그 카리스마의 중심에는 강한 눈빛과 함께 붉은 색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마지막 라운드에는 예외없이 붉은 색 티셔츠를 입고 필드에 나타난다. 그의 붉은 셔츠는 동반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지난 8월에 열린 PGA 챔피언십 3라운드가 끝나자 호사자들은 마지막 라운드에 함께 플레이할 우즈와 공동선두인 메이저 새내기 루크 도널드(잉글랜드)가 또다시 '붉은 셔츠의 공포'에 희생양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결과는 빛나가지 않았다. 도널드는 준우승도 못했다.

우즈는 생애 최초의 메이저 우승컵을 거머쥔 1997년 봄 마스터스 대회에서 최종일 동반자로 나선 이탈리아의 콘스탄티노 로카를 메이저대회 '붉은 셔츠 공포'의 첫번째 제물로 삼았다. 이어 99

년 PGA챔피언십 마지막 캐나다의 프랑제다. 그 위에 아무도 없음을 이르는 최고의 찬사인데 그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제왕다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그 카리스마의 중심에는 강한 눈빛과 함께 붉은 색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마지막 라운드에는 예외없이 붉은 색 티셔츠를 입고 필드에 나타난다. 그의 붉은 셔츠는 동반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12일 끝난 프로골프 유럽챔피언투어 HS-BC 챔피언십에서 양은이 마지막 라운드에 역시 붉은 셔츠를 입고 나온 세계 1위 타이거 우즈를 물리치고 우승을 했다. 양은은 아직 최정수에 비할수는 없지만 최정수가 우승한 4개 대회마다 우즈가 불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선수' 양은이 영웅으로 재탄생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처부장 khh@

'보통 선수'



NGO 칼럼

이옥금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는 우리 여성들의 삶의 방식에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20세기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화두만을 안고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환경오염,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들을 노출시켰다.

루시아 라우에(Marcia D. Lowe)는 '환경과 인간차원에서 도시만들기'라는 그녀의 논문에서 세계는 지금 환경과 인간적인 차원을 깊이 고려하는 도시계획의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이제 '환경과 인간차원에서 도시만들기' 과제를 추진해야 할 역사적인 전환기를

정책(환경정책, 교통정책, 정주 및 주택정책)이 여성화, 세계화 시대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매년 '여성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사시노 시가 선정된 바 있다. 무사시노 시의 특징을 보면 시민의 소득수준이 높고, 시재정이 넉넉하여 교육과 복지, 상업, 문화, 정보 등 생활밀착형 다기능의 성숙한 도시로 평가 받는다.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장 참여와 협력도 활성화되어, '교육도시', '복지와 문화도시', '환경공생·생활문화 창조도시'로도 평가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Irvine)은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맞고 있다. 특히 도시의 약자로 남아 있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들도 아무 불편함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기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에 대한 정의는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합의된 의견 역시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이 선택하는 도시, 여성에게 선택받은 도시가 바로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라는 것이다. 육아와 교육, 쇼핑, 문화, 레포츠 활동, 커뮤니티 및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주도해야 하는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여성적 시각에서 재정의하고 있다. 국가와 도시의 제반

미국 200개 도시를 상대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여성의 삶의 질'조사에서 2년 연속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고 있는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이다. 선진국들은 매년 여성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선정하여 도시경영에 반영하고 다중은 도시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모범사례를 만들고 네트워크 했으면 한다.

하지만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형화된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개발방향이다. 아름답고 여유있는 도시, 개성 있고 문화적인 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의 중심에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이 많은 도시가 바로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

<전국지방분권여성네트워크 광주·전남본부 대표>

지나친 염류 섭취 위험, 가공식품 소금 함유량 표시 해야

우리 국민들의 염류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TO)의 권고치는 5g. 정부가 국민들에게 권하는 1일 소금 섭취량도 10g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12.5g을 먹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나친 소금 섭취는 개인의 식습관도 문제지만 가공식품에 지나치게 많은 소금이 함유돼 있고 정부에서 가공식품의 소금 함유량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식당은 물론 단체급식매영양사들도 소금함유량을 알 수가 없어 전체 소금투여량을 계산해 내기 어렵다고 한다.

가공 식품들에 대해 정부가 소금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시키면 어떨까. 여기에 지속적 홍보를 통해 국민들도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다면 성인병 발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최남이·광주시 남구 백운동



말똥은 식량자원



똥도 똥 나름일까.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동물은 호랑이 똥만 봐도 무서워하는 피한다고 하는데, 말똥은 반대인 것 같다.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으로 느껴지는 '똥'이 아니다. 말똥, 다른 동물들조차 먹으려고 달려들 정도다.

대체 무슨 맛이 금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맛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일부 수의사들은 직접 맛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

여하튼 말이 배설한 똥은 송편이나 경단과 비슷하게 모양이 좋다. 윤기가 흐르고 가운데는 움푹 파여 있어 마치

똥도 똥 나름일까.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동물은 호랑이 똥만 봐도 무서워하는 피한다고 하는데, 말똥은 반대인 것 같다.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으로 느껴지는 '똥'이 아니다. 말똥, 다른 동물들조차 먹으려고 달려들 정도다.

대체 무슨 맛이 금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맛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일부 수의사들은 직접 맛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

여하튼 말이 배설한 똥은 송편이나 경단과 비슷하게 모양이 좋다. 윤기가 흐르고 가운데는 움푹 파여 있어 마치

광주일보를 읽고

전어 중간유통업자 바가지 상흔 분통

광주일보 11월 1일자 13면 '전어값 폭락- 양식이거 울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를 읽고 쓴다.

요즘 전어를 사먹다보면 중간 유통업자들의 농간과 장난질에 화가 난다. 양식 전어가 안팔리는 것은 자연산 전어가 풍어이고 양식 전어가 많이 쏟아져 나온 것도 한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횡집이나 시장에서 전어를 구입할 때 산지 전어값이 폭락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다. 소비자 값은 예전 값 그대로 다 주고 있기 때문이다. 횡집이나 활어 판매 시장에서는 어떤

들이 처음 낼때보다 5-10배나 비싸게 팔며 바가지를 써우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전어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다. 그 와중에 중간 유통상인들만 배불리고 어민들과 소비자들만 피해보고 있는 이 분통이 터진다.

동부지역에서도 순천 발랑 해역을 중심으로 많은 전어가 양식되고 있다고 한다.

어민들도 이때쯤 한뫼잡아 겨울을 난다는데 중간 유통업자들의 장난질을 막아 어민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바란다.

▲이종연·곡성군 석곡면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